

2017년 5월 26일,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경로당, 이현정 조사.

제보자1: 김수길(남, 1939년생, 구좌읍 종달리)

제보자2: 고응부(남, 1935년생, 구좌읍 종달리)

- 줄거리: 제보자가 하루는 도새기 추렴에 참가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돼지고기를 뜯어먹으며 집으로 오는데, '연딧동산'이란 곳에서 도깨비불을 만나 홀리게 된다. 이때부터 제보자는 집을 찾지 못하고 정처 없이 주변을 돌아다니다 날이 밝아올 즈음이 되어서야 정신이 들어 자신에게 있던 성냥으로 불을 밝혀 도깨비불을 쫓아내었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횡설수설 하며 제정신을 찾지 못하자 제보자의 부인이 지푸라기를 태워 연기로 도깨비에게 홀리 제보자의 양 어깨를 쓸어내렸다고 한다. 자신이 도깨비에게 홀려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자칫 모른 채 지나갈 뻔하였지만, 그날 새신을 신었던 탓에 발과 담에 선명히 신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신발자국이 찍힌 곳은 도저히 온전한 정신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한다.

[제보자1] 겐데이 옛날에는 이제, 나가 쪽 두모연포 바닷가에 살았주게. 지금도 살고 잇주만은.

[조사자] 어디 바닷가마씨?

[제보자1] 바닷가 쪽에 집이 잇거든. 집이 살았는데. 초가집인데이. 으 가름이엔 허믄이 마을을 말허는 거라. 우에이 카름에. 가서 맨날 놀거든 나가. 장구치고 노래도 불르곡 잘 놀기도 허곡 술도 잘 먹어이.

또, 이제 그러니깐이

“추렴허자.”

허믄은 말이지, 도새기라고, 꺼멍 도새기 집집마다 질를 때에, 그거 인제 하나 탁 흥성 헤가지고 사가지고 인제, 추렴을 허는 거라. 추렴을 헤서 인제, 훈빼씩 다 나. 나가 뭐 전각이믄 전각, 후각이믄 후각 하나씩 다 갈르는 거라 전부. 갈랑 헤는데이, 술이 취해 노니까 난 그 바닷가 쪽에 집이 가는 동안에 다 뜯어먹어 가불어 생차. (웃음) 갈비?뜬 거 하나 헤도 그거이 그 불로 기실이니까 그렇게 고소헐 수가 엊어예. 그걸 (웃음) 그걸 다 뜯어먹고 갓다. 뜯어먹고 가. 겐 빼만 남경 가지. (웃음)

경 헨 훈번은이 가다가 말이여. 술이 이만큼 데가지고 가는데. 도체비 잘 난 덴 헌 고비가 잇어. 연뒷동산이란 데가. 거기가이 도체비 난덴 허주게. 지난 실 지난 만나보지도 못햇는데. 아 어느 날 흐루는 말이지. 아. 이만이 헌 불이 앞 이 와서 탁 산단 말이야. 그때부턴 정신이 캄캄 어둑어 부는 거라.

겐디 이젠 딴 길로 데령 가서. 보리밧디 가서. 막 왓다갓다. 왓다갓다하는 게 막 새벽 데도록이 왓다. 담 걸리민 오곡. 여기 담 걸리면은 저기 가곡 왓다갓다 허는기 보리밧 다 불랏어.

겐 이젠 붉아가니깐 이젠 길로 딱 허게 데령 나왓는데. 아 딱 불이 또 이젠 앞이 떡 서는 거라. 아. 그제야 나가이 성냥도 잇곡 라이타도 잇어도 그 생각을 원 안 하더라고 그거는 정신이 딱 나가버리니까. 아. 그제야 이젠 성냥도 영 켜고 허는데 짹 허게 불이 이젠 헤서 소남밧딜로 말이지 딱 들어가부는 거라. 그 불이. 그디 무덤이 잇주게.

[조사자] 아. 소낭밧디 무덤이 잇구나예?

[제보자1] 응. 소낭밧디. 아. 게 이젠 나와가지. 이젠 나는 집으로 돌아가게 됐네 아니? 돌아가도 정신이 엇는 거라. 집에 가서 막 그, 할망 마노라 잇는 땐데.
“아이휴. 오다가 뭐 누구 만나가지고 돈도 얼마 줘버리고.”
막 헛말로 기냥 막 지껄이는 거라 나가.

게니깐 이제 집사름이 이젠 겁이나가지고 이젠 거. 초가집덜이 기신새라고이 새. 새로 집 일윗잖아. 그거 빠가지고 불 부찌가지고 이젠 영 흔들어 주는 거라. 이젠.

[조사자] 들린 사람 영 좌우로 흔들어줘마씨?

[제보자1] 응. 그니깐 이젠 따라오지 못핸 도망가게끔 헌다고 헤서. 거 방수로 하는 거거든 저거를. 아. 겐디 이젠 그날 헤난 거를 몰르잖아. 나는. 어떻게 알았느냐믄은 그날 새신을 신고 나갔어 나가. 새신을 신고 나갔는데. 아 딱 찾아보니깐 말이지 거 밧디 새신 신고말이지 불라난 자국이 말이지 훤히 나타나거든. ‘하이고. 나가 이디 와서 이게.’ 어. 담도 안 별이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또 이만큼 헌 그. 벽담 우이로 또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몰라. 건 구신이 다 그냥 시킨 거라 노니까는 멀어지지도 안 허게이.

그렇게 야. 거 희한하더라고 나도. 나도이 역시. 아. 겐 그냥 정신이 그냥 완

전히 나가불었어. 나가 정말로. 경 헤나도 뭐 죽장 다니는데. 그후로는 도체비 말이 엊었어. 이제는.

[조사자] 그로후제는 엊었고예?

[제보자1] 응.

[조사자] 여기는 도체비 모신 집은 옛날에 엊어낫우과?

[제보자1] 엊었어. 몰라 잇엇일 거라. 뭐, 뭐, 저 그 도체비 모셔그네 허는 집덜이 잇어나지 아녔수과? 글쎄 난 잘 모르겠는디 거.

[제보자2] 우리도 잘 모르는디. 그런 말이 잇어.

[조사자] 아, 도체비 모시면 막 잘 됐다가 그로후제는…….

[제보자2] 응. 막 망해불곡.

[제보자1] 망하젠 허믄 복삭 망해불곡게.

[제보자2] 그, 들어간 그 잇는 집은 알아져. 그 들어가는 집 그 집 울담에다가 히영현 돌은 놔.

[조사자] 울담에다가 히영현 돌을 놔마씨?

[제보자2] 응. 그 원래 '저 집이 도체비 잇저.' 허믄이 그 집이 가믄 표가 딱 잇어. 저 ○ ○ 가시어멍네도 그거 믿어낫거든. 그디 강 보믄 울담에다가 히영현 거이? 톡 돌이 힌돌 헤당 먹돌도 헤당 톡 놓 잇어.

[조사자] 그거는 톡 놔두는 건 건…….

[제보자2] 몰라 우리도 그 이유는. 어릴 때고이 이제는 엊거든 그럴 때 어릴 때 보니까 그거 이제 딱 어느 집인 뭐 잇다허믄 그거 딱 강 보면은 그런 게 잇어.

- 핵심어 : 도체비, 도새기, 연뒷동산, 불, 보리밭, 무덤, 헛말, 기신새, 불, 방수, 울담, 조상, 돼지, 도깨비